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전산화현황

전화설문 분석결과<1>

사찰·불교단체 절반만 컴퓨터 활용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절반가량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는 주로 종무관리와 자료관리 및 인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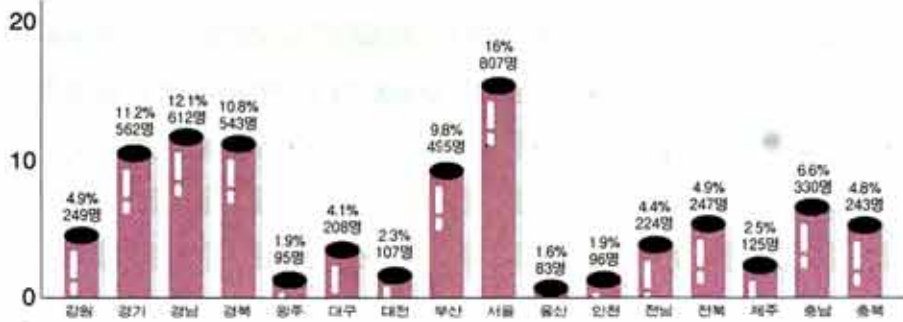
전국의 사찰(단체) 5,002개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화설문해 본 결과 49.9%(2,497명)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1.4%(69명)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8.7%(2,43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단체 유형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의 41.7%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교육기관은 96.1%, 불교단체는 82.6%, 복지기관은 94%, 기타는 82.3% 등으로 나타났다.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사찰이 산중에 위치하여 정보사회의 매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찰의 업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순하고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효율적인 신도관리와 포교활동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03명이 응답한 우편 면접조사 결과 979명(81.4%)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돼 전화설문보다 3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편 설문에 응했고 조사자가 사찰(단체) 방문시 교구본사 및 수발사, 대표적인 불교단체 등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보유대수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유효 응답 2,493개소 가운데 1,394개소(55.9%)가 1대, 529개소(21.2%) 2대, 207개소(8.3%) 3대, 104개소(4.2%) 4대, 259(10.4%)개소가

▶전화설문 응답자 지역별 분포



응답사찰·단체 전국 고루분포

서울15.9 경남12 경기11 경북10.8% 순

설문응답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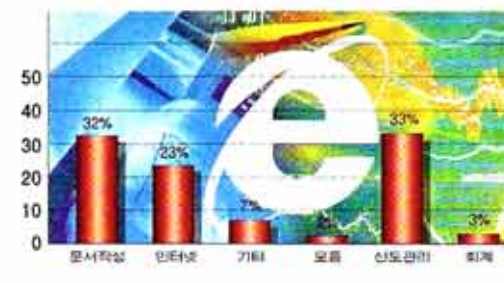
전화설문을 실시한 사찰과 단체는 모두 1만여 곳이었으나 유효 응답을 확보한 곳은 5,002곳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찰과 단체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를 보였다. 응답한 사찰은 82.7%인 4,135곳이었고 교육기관 386곳(7.7%)과 단체 복지기관 등의 분포를 보여 사찰이 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사찰의

지역적 분포도 7.8%에서 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전화 설문에서는 사찰의 지역성이나 규모 등에 구애됨이 없이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조사의 결과는 불교계의 전수조사에 걸맞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적 응답 대상의 분포는 서울 15.9%(797), 경남 12.2%(610), 경기 11.2%(558), 경북 10.8%(540), 부산 9.8%(492) 등이었다.



▶컴퓨터 사용 목적



보급률 사찰 41.7% 교육기관 96% 단체 83%
77%가 2대 이하 "현재 보유량에 만족" | 용도 종무·신도관리·문서작성 집중
회계·정보생산등엔 활용빈도 낮아

사찰(단체)에서의 컴퓨터 주사용자

컴퓨터 용도	담당소임자	공동사용	주지스님/회장	기타	모름/답변거부	전체
사용중	count 844	717	623	456	15	2,655
	% 31.8%	27%	23.5%	17.2%	0.6%	100%
있으나 사용안함	count 1	0	0	4	1	6
	% 16.7%	0%	0%	66.7%	16.7%	100%
전체	count 845	717	623	460	16	2,661
	% 31.8%	26.9%	23.4%	17.3%	0.6%	100%

5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더 필요한 컴퓨터수를 조사

해본 결과 255개 사찰(단체)만이 필요하다고 밝혀 대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보유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단체)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는지를 전화 설문해본 결과 총 응답자 3,220명 가운데 1,104명(34%)이 종무관리, 841명(26%)이 자료 관리 및 인쇄, 449명(14%)이 개인 업무용, 311명(10%)이 교육용, 463명(14%)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사찰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종무관리에 치우치는 것은 주 소 리벨 출력, 우편발송에 이용하거나 축원카드를 출력하는 등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3,410명 가운데 1,128명(33%)이 신도 및 회원관리, 1,076명(32%)이 문서작성, 773명(23%)이 인터넷, 107명(3%)이 회계, 77명(2%)이 모뎀 및 답변거부, 256명(7%)이 기타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찰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종무관리를 위한 문서작성과 신도관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회계 및 관리 정보의 생산 등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가 단순 관리 업무에서부터 계획 수립, 분석,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

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의 업무용 컴퓨터는 특정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찰에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일지라는 질문을 해 본 결과 12.5%가 주지스님(대표)이 주로 사용한다, 16.9%가 담당 소임자, 14.3%가 공동 사용, 9.2%가 기타라고 답변했다. 응답 분포는 사찰(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교계의 사찰(단체)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의 규모가 작아 업무의 분화 및 전문 인력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주지스님 혹은 단체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업무 수행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찰(단체)의 업무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가 그만큼 더디게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불교정보화 실태 이렇게 파악했다

1차 전화, 2차 우편·방문면접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 부정적 인 평가를 내리는데 그쳤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불교계 정보화의 수준은 고사하고, 현황을 정확히 가능할 지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부터 정보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온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아쉬워하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는 바로 "도대체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사정은 어떨까?"라는 물음에 가장 신뢰성 있는 답안지를 내놓기 위해 실시된 불교계 최초의 작업이었다. 조사의 범위도 어떤 형태로든 고계에 드러난 모든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힘으로 전수조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때문에 이번조사는 불교계 초유의 최대 규모 정보화 실태파악이라는 중

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

2차 조사에 해당하는 우편과 방문면접 설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의 주요 설문 항목은 컴퓨터의 보유, 전담직원의 유무, 사용 컴퓨터의 사양, 향후 구입의사, 종무관리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인터넷 활용 정도, 전자우편 활용 여부, 홈페이지 운영 실태, 인터넷 동호회 활동 여부, 소풍물 활용 여부, 사이버 법당 운영여부, 불교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주제로 포괄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편을 이용해 5,000여 사찰에 설문지를 발송해 20여일 만에 10%에 해당하는 500여 건을 회수했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방문면접 설문에서도 400여건의 유효 응답지를 얻었다. 특히 방문면접 설문의 경우 조계종 총무원이 297곳의 조

모든사찰·단체대상 전수조사

1차=기기보유현황·인터넷·홈페이지에 초점

2차=장비사양·운영실태 등 보다 구체적 접근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사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훌륭한 '답안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화를 통해 주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문하고, 2차적으로 우편과 방문 면접설문을 병행했다. 조사 대상 범위의 최대화와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최고치를 함께 노렸던 것. 전화조사의 경우 전문 설문용역 업체에서 전문화된 시스템에 의해 집중적으로 실시해 1만여 대상 가운데 5,038건의 유효 응답을 획득했다. 전화를 통한 설문에는 무엇보다 시간적 한계가 있어 질문 문항을 제한해야 했다. 그래서 전화 설문에서는 사찰 및 단체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보유현황, 인터넷 사용, 홈페이지 운영, 통신회선 등의 운영에 대

계종 사찰에 대해 방문 설문 유효 응답지를 확보했다. 이는 조계종의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2차 조사의 유효 응답지는 모두 1,203건이었다.

전화설문조사는 두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분석했다. 5,038건의 유효 응답을 확보한 만큼 다각적인 분석으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화설문의 결과는 1차적으로 설문 용역을 맡았던 (주)프리즘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래픽 형식으로 분석 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승가대 김용철교수(포교사 회화)가 상세히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편과 방문 면접 설문조사도 분석했으며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562쪽 분량의 보고서가 제작됐다.

1,157개 사찰 초고속망 이용

KT조사, 조계종 17.4%, 태고종 12.2%

불교정보화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업을 협찬한 KT측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망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KT의 전국 지사망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된 사찰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현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이루어진 8,241곳의 사찰 가운데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찰은 14.2%에 해당하는 1,157곳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의 경우 2,343곳의 사찰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가운데 409곳의 사찰이 이용하고 있어 17.4%의 이용율을 보였다.

태고종의 경우는 12.2%를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사찰 1,994곳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320곳의 사찰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16%의 이용율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는 14.6%, 광주시는 24.6%, 대구시는 23.5% 등의 이용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는 도심지역 4Km 이상의 비경제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찰이 평균 39%를 보여 도시 인근의 사찰은 거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조사사찰	초고속이용사찰	초고속이용률	선로길이 4km이하율
서울 수도권	1,994	320	16.0%	61.3%
6대 광역시	2,045	348	17.0%	73.3%
기타 지방지역	4,102	489	11.9%	54.5%
합계	8,141	1,157	14.2%	60.9%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후원, KT(한국통신)가 협찬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가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보화 분야의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佛事)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여 이번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을 미다하지 않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사찰과 단체 사부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 종단 300여 사찰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직접 실시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었고 이제 그 분석결과가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교정보화(불교)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건언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협력해 주신 전국의 사찰과 단체 사부대중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 TV, 현대불교신문사
- 기획자문 : (주)에플웨어 정보통신

- 협찬 : KT(한국통신)
- 후원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사은품 '에밀레종 모형' 추천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전화설문과 우편 및 면접 설문에 동참하신 사찰과 단체에 감사드리며 100곳을 추천하여 사은품 에밀레종 모형을 보내드렸습니다. 추천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사은품은 7월 10일 이전에 발송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전화설문과 우편 및 면접 설문에 동참하신 사찰과 단체에 감사드리며 100곳을 추천하여 사은품 에밀레종 모형을 보내드렸습니다. 추천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사은품은 7월 10일 이전에 발송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